

  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21. 6. 14. / (총 4 매)			
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1팀	과 장	황 호 평	전 화	043-913-2307
	담 당 자	손 민 영		043-913-2301
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	과 장	진 미		061-286-5360
	담 당 자	김 선 미		061-286-5384
해군본부 공보과	과 장	김 영 규		042-553-6620
	담 당 자	김 형 진		042-553-6622
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수송지원본부	과 장	심 희 권		043-719-8362
	담 당 자	김 석 한		043-719-8365

도서지역 주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군함정이 찾아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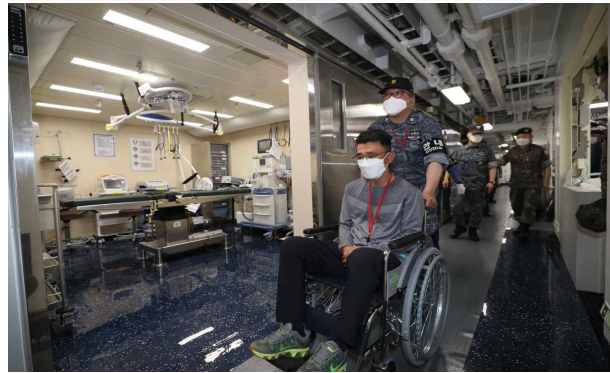
- 해군함정(한산도함)을 활용하여 전라남도 도서지역(25개) 주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-

□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(단장 정은경 청장, 이하 추진단)은 6월 14일부터 6월말까지 해군함정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(落島) 및 무의(無醫)도서 25개 지역, 30세 이상(91. 12 31. 이전 출생)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해군함정(한산도함) 접종은 처음 시도되는 '해상 순회 접종'으로, 전라남도(도지사 김영록)의 적극적인 요청과 협력, 해군(참모총장 부석중)의 의료진과 함정 제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,

- 최근 미국으로부터 공여 받은 얀센 백신(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력 확보)으로 접종이 진행된다.

-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하여 수송지원본부(박주경 중장)의 지휘 하에 6월11일 해군, 해경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.



모의훈련 현장('21.6.11, 국방일보 제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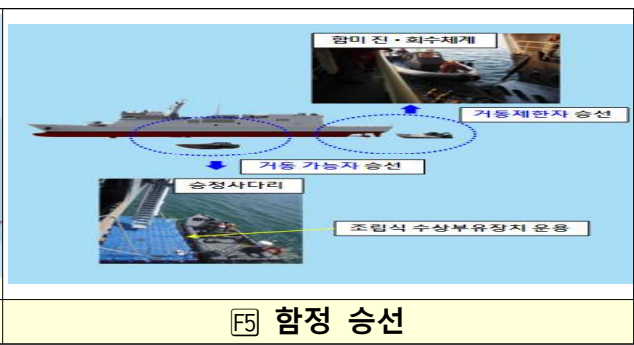
- 접종 첫날, 한산도함은 전남 가사도, 성남도, 소성남도 주민 80여명을 찾아간다.
- 먼저, 인근 바다에 함정을 투묘* 하고, 고속단정(RIB)과 상륙주정, 전남도의 행정선이 동원되어 해군함정으로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함정 내 격납고에서 백신접종이 진행된다.
- * 투묘 : 배를 정박하고자 닻을 내림
- 동선에 따라 곳곳에 배치된 안내·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신분 확인, 문진표 작성, 군의관 예진 이후 백신을 접종하며, 대기 장소에서 30분간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다. 이후, 이상 반응이 없는 주민은 타고 온 고속단정, 상륙주정 등을 이용해 섬으로 돌아간다.

- 한산도함은 오늘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전라남도 25개 도서, 30세 이상 600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.

<p>[도서지역 주민 이송 절차]</p> <p>① 함정 투묘 및 고속단정·상륙주정 진수 * 진수 : 함정에서 단·주정을 바다에 띄우는 것</p> <p>② 지원 도서 이동 및 주민 탑승</p> <p>③ 함정 이동 및 승함 *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고속단정 탑승, 진·회수체계 이용 함내 이동 * 그 외 주민은 이동식 바지에 하선 후 사다리 이용 함내 이동</p> <p>④ 백신 접종</p> <p>⑤ 이상 반응 없을 시 고속단정·상륙주정 이용 도서 복귀</p>



F4 도서 ↔ 함정 이동



F5 함정 승선

- 도서 지역 백신 접종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한산도함장 조완희 중령은 “전라남도,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산도함에서 접종을 앞둔 주민 A씨는 “해군함정까지 보내 도서 주민들의 접종 여건을 배려해 주신 해군과 전라남도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.”며 “이번 한 번의 접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-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진미 과장은 “섬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특성상 도서 주민들의 예방접종을 위한 방법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해군과 관계자 분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접종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 말씀을 전한다. 적극적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<참고> 대한민국 해군의 첫 훈련함 ‘한산도함’

참고 대한민국 해군의 첫 훈련함 '한산도함'

1 연혁

-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·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된 한산도함(ATH-81, 4,500톤급)은 2018년 11월 16일 진수, 2020년 10월 22일 취역

* ATH : Auxiliary Training ship Helo


- * 해군은 한산도가 임진왜란 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위치했고, 한산도해전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해 함명을 한산도함으로 정함

2 주요 임무

- (교육기능) 한산도함은 사관생도의 연안실습, 순항훈련 및 장교·부사관의 보수교육 과정 함정 실습 등을 지원하며, 400여 명 이상의 거주공간은 물론 2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강의실 등 4개의 강의실과 조함·기관 등의 실습실을 구비

- (의료기능) 국내 군함 중 최대규모의 의무실과 병상을 갖춰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량 전상자의 초기 처치와 후송을 담당하는 전상자 구조·치료함(CRTS : Casualty Receiving and Treatment Ship) 역할 수행 가능. 중환자 처치를 위한 대수술실 등 3개의 수술실, 진료실과 병실 설치

* 평소 진료실·수술실은 강의실로, 60실 규모(중환자실, 일반병실 구분)의 병실은 실습생 침실로 사용

	구 분	주요 제원
	톤 수	4,500톤
	전장/높이	142m / 37m
	최대속력	24kts(43km/h)
	순항속력	18kts(33km/h)
	승 조 원	120명
주요무장	함포(76mm, 40mm), 대유도탄기만체계 등	